

마태복음 23:26 본문비평과 해석

송영목*

1. 들어가면서

Greek New Testament 4판과 5판(이하 GNT⁴/GNT⁵)의 마태복음에서, 본문 비평 등급이 가장 불확실하고 큰 논쟁이 일어남을 알리는 {D}인 경우는 23:26뿐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주석들 가운데 이 구절의 본문비평을 상세히 다루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다소 의아하다. GNT⁴/GNT⁵의 편집 위원인 메츠거(B. M. Metzger)는 마태복음 23:26의 복수 속격 대명사 *αὐτῶν* (잔과 대접의)이 아니라 단수 속격 대명사 *αὐτοῦ*(잔의)를 원본으로 간주하면서, 후대 필사자들이 마태복음 23:25의 ‘대접’(παροψίς)을 26절에 추가하여 복수 속격 대명사로 바뀌었다고 간략히 설명한다.¹⁾ 하지만 메츠거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는다. 이 구절에서 GNT⁴/GNT⁵ 편집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기에 *αὐτοῦ*(잔의)를 본문에 표기하지만 비평등급은 {D}가 매겨졌다.

이 글은 마태복음 23:26의 철저하고도 다차원적인 본문비평을 위해, 먼저 사본의 지지를 살피는 외증을 연구한다. 그 다음 내증을 분석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23:13-36의 구조 분석, 23:26의 문맥, 마태의 문체, 그리고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과 주요 신학을 차례로 탐구한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 University of Johannesburg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고신대학교 신약학 교수.
ymsongrau@hanmail.net.

1) B. M.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장동수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05), 49.

23:26의 상호본문의 빛 속에서 어떤 독법이 원본에 일치하는가를 살핀다.²⁾

2. 마태복음 23:26의 독법들과 외증

그리스어 독법들을 살피기 전에 한글 번역을 간단히 살펴보면, 한글 『개역개정』(1998)은 마태복음 23:26상반에서 대명사 없이 ‘안을’로, 26하반절에서 대명사 없이 ‘겔도’라고 번역한다. 따라서 안과 겔이 25절의 ‘잔’인지 아니면 ‘대접’인지, 아니면 ‘잔과 대접’ 둘 다 가리키는지 정확하지 않다. 반면, 『공동』(1977)은 26상반절에서 ‘잔 속을’로 번역하고, 26하반절에서 대명사 없이 ‘겔도’로 모호하게 번역하지만 바로 잔의 겔을 엄두에 두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마태복음 23:26의 그리스어 독법은 총 6개인데,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독법	사본과 역본의 지지
τὸ ἐντὸς τοῦ ποτηρίου(잔의 속) … τὸ ἐκτὸς αὐτοῦ(그것의 밖)	Θ f ¹ 205 700 it ^{a,c} syr ^s geo 루터성경 아프리카스성경(1983, 2012) 화란어성경(1951) 히브리어 신약성경(DLZ)
τὸ ἐντὸς τοῦ ποτηρίου(잔의 속) … τὸ ἔξωθεν αὐτοῦ(그것의 밖)	D it ^d
τὸ ἐντὸς τοῦ ποτηρίου καὶ τῆς παροψίδος(잔과 대접의 속) … τὸ ἐκτὸς αὐτοῦ(그것의 밖)	B* E* G f ³ 28 157 1424 1387 eth NIV ESV KJV
τὸ ἐντὸς τοῦ ποτηρίου καὶ τῆς παροψίδος(잔과 대접의 속) … τὸ ἐκτὸς αὐτῶν(그것들의 밖)	κ ² (κ* 1243 ἐντὸς for ἐκτὸς) B ² C L W 0102 33 Byz Lect Tyndale Greek New Testament(2017)
τὸ ἐντὸς τοῦ ποτηρίου καὶ τῆς παροψίδος(잔과 대접의 속) … τὸ ἐκτὸς(밖)	it ^{aur, c, f} vg cop ^{meg}
τὸ ἐντὸς τοῦ ποτηρίου καὶ τῆς παροψίδος(잔과 대접의 속) … αὐτό(그것)	11211 ^{1/2}

사본상의 지지는 첫째와 셋째 그리고 넷째 독법에 쏠려 있다. 둘째 독법

2) 본문비평을 다차원적으로 시도한 유사한 경우는 송영목, “마가복음 7:9 본문비평과 해석”, 『신약논단』 28:2 (2021), 393-426을 보라.

의 경우 그리스어 사본과 고대 역본의 지지가 매우 약하다. 그리고 그리스어 사본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다섯째 이문은 *αὐτοῦ/αὐτῶν*을 생략함으로써, 잔과 대접을 사람에 대한 은유로 이해하는 듯하다. 그리고 여섯째 독법도 그리스어 사본과 고대 역본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나의 성구집의 지지조차 충분하지 않다.

여기서 여섯 이문들의 의미적 차이를 간략하게나마 살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문들 간의 의미의 차이는 물론, 달리 번역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찾을 수 있다. 첫째 이문의 의미는 ‘잔의 속 … 그것의 밖’이다. 여기서 ‘그것의 밖’은 잔의 위치나 장소의 바깥을 가리킨다. 둘째 이문의 의미는 ‘잔의 속 … 그것의 밖’이다. ‘그것의 밖’을 직역하면 ‘그것의 밖으로부터의 것’도 불가능하지 않지만 어색하다.³⁾ 셋째 이문의 뜻은 ‘잔과 대접의 속 … 그것의 밖’이다. 여기서 중성 단수 속격 대명사 ‘그것의’(*αὐτοῦ*)는 여성 명사 ‘대접’(*παροψίς*)이 아니라 중성 명사 ‘잔’(*ποτήριον*)을 가리킨다. 따라서 셋째 독법은 ‘잔과 대접의 속 … 잔의 밖’을 가리킨다. 넷째 이문의 의미는 ‘잔과 대접의 속 … 그것들(잔과 대접)의 밖’이다. 다섯째 이문의 뜻은 ‘잔과 대접의 속 … 그 밖’이다. 여기서 ‘그 밖’의 대상이 잔인지 대접인지 불분명하다. 여섯째 이문의 뜻은 ‘잔과 대접의 속 … 그것’이다. 여기서 ‘그것’(*αὐτό*)의 대상이 잔인지 아니면 대접인지, 혹은 ‘잔과 대접의 속’인지조차 전부 모호하다. 요약하면, 첫째-둘째 이문은 단어들(*ἐκτός, ἔξωθε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동일하다. 넷째 이문은 대접의 밖도 포함하므로, 두 대상(잔과 대접)과 두 표면(안과 밖)이라는 가장 포괄적 의미를 전달한다. 다섯째 독법에서 ‘그 밖’은 잔이나 대접 중에 하나의 밖을 가리키므로, 셋째 이문과 의미상 유사하다. 사본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는 여섯째 독법의 의미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의미가 가장 불분명한 독법이라고 해서 원본에 가장 가깝다고 판단할 수 없다.

GNT⁵와 NTG²⁸이 복원 가능한 가장 오래된 시작 본문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 ‘일관성에 기초한 계보적 방법’(Coherence-Based Genealogical Method; 이하 CBGM)은 먼저 검증 가능한 현존하는 약 90%의 사본과 교부 문헌을 모아 일관성의 관점으로 분석한 것이다.⁴⁾ CBGM의 전제가 되는 가정을 요약하면, 필사자가 저본(Vorlage)을 신실하게 필사할 때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소수의 자료를 참고했으며, 필사자가 다른 독법을 제시할

3) F. Montanari, *The Brill Dictionary of Ancient Greek* (Leiden: Brill, 2015), 730.

4) 참고. D. C. 파커, 『신약성경 사본학 강의』, 김은혜 역 (서울: CLC, 2019), 113, 127-128, 156; 고영렬, “네스틀레 알란트(Nestle-Aland) 28판의 이론적 배경과 평가”, 『신약논단』 22:2 (2015), 254.

경우 그것은 다른 자료에서 온 것이다.⁵⁾ CBGM의 가정에 따르면, 소위 서방본문 유형으로서 소수의 일관성 있는 D(5세기)와 it^d(5세기)의 지지를 받는 둘째 독법(τὸ ἐντὸς τοῦ ποτηρίου … τὸ ἔξωθεν αὐτοῦ)가 가장 원본에 가깝다. 하지만 둘째 독법은 그리스어 사본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원본으로 볼 수 없는 결정적인 걸림돌이다.

여기서 외증의 연구 범위를 좁혀, 그리스어 사본의 지지를 상당히 받는 첫째와 셋째 그리고 넷째 독법을 중심으로 살핀다. 이 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첫째, 이 세 독법은 사본들의 어떤 계보적 일관성을 반영하는가? 둘째, 이 세 독법은 CBGM의 가정에 적합한가?

가장 짧은 표현인 첫째 독법(τὸ ἐντὸς τοῦ ποτηρίου … τὸ ἐκτὸς αὐτοῦ)을 지지하는 Θ(9세기) f¹(10-14세기) 205(15세기) 700(11세기) it^{a, c}(4-5세기) syr^s(4세기) geo(5세기)는 사본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데, 사본의 계보와 장소 및 시간에 있어 서로 밀접히 연관되는가? 이 사본들이 필사된 기간은 AD 4-15세기이므로 약 110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사본들이 제작되고 유통된 이탈리아와 시리아와 터키라는 광활한 지역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보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CBGM의 계보적 일관성을 따라 말한다면, (소위 서방본문 유형의) 이탈리아어 역본, (소위 서방본문 유형의) 시리아어 역본, 그리고 (가이사라본문 유형의) 그루지아어 역본은 9세기 이후의 그리스어 사본(Θ f¹ 205 700)의 조상 본문이 될 수 있는가?⁶⁾ 이 질문에 답은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그리스어 사본이 고대 역본의 선조 본문 역할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역은 성립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째 독법의 경우, 사본들의 계보적 연관성보다는 차이점이 더 분명하다.⁷⁾

긴 표현인 셋째 독법(τὸ ἐντὸς τοῦ ποτηρίου καὶ τῆς παροψίδος … τὸ ἐκτὸς αὐτοῦ)을 지지하는 B^{*}(4세기) E^{*}(6세기) G(9세기) f¹³(11-15세기) 28(11세기) 157(12세기) 1424(9-10세기) l387(11세기) eth(6세기)는 사본 수가 그리 많지 않은데, 계보상 서로 밀접한가? 다시 말해, 4세기의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B^{*}는 6세기의 비잔틴 계열 및 혼합된 계열의 에티오피아어 역본을 거쳐서 한참 후대인 11-15세기의 다른 지역의 비잔틴 계열의 소문자 사본(f¹³)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유로 일관성과 응집력을 보이는가?⁸⁾ 대다수의 사본학자들은

5) 고영렬, “네스틀레 알란트(Nestle-Aland) 28판의 이론적 배경과 평가”, 260-262.

6) 참고. B. M. 메츠거, B. D. 얼만, 『신약의 본문』, 장성민 외 역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9), 142, 171.

7) 물론 (그리스어 및 고대 언어) 사본들의 계보적 차이점이 분명할 경우, 동일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문들이 아니라 원래의 독법, 곧 시작 본문들이 모두 보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8) 참고. B. M. 메츠거, B. D. 얼만, 『신약의 본문』, 174.

B*가 f³의 개연성 있는 조상이라고 보지 않으므로, 셋째 독법에서 사본의 계보적 응집성과 일관성이 나타나는 것은 다소 의아하다. 그럼에도 응집성을 보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B*는 근접 지역의 에티오피아 역본에게 영향을 주었을 수 있고, 에티오피아어 역본이 동일 본문 계열인 f³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셋째 이문을 지지하는 사본들은 왜 앞의 ‘잔과 대접’을 뒤에서 단수 대명사(αὐτοῦ)로 처리하는가? 필사자들이 잔과 대접을 마치 한 세트처럼 묶어서 제유법처럼 이해했기 때문이다. 사본 필사자들의 이러한 이해 관습은 어떤 공통된 조상 사본의 영향 때문에, 오랜 세월이 걸쳐 다양한 지역에 번개되지 않고 전수된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셋째 독법처럼 긴 표현인 넷째 이문(τὸ ἐντὸς τοῦ ποτηρίου καὶ τῆς παροψίδος … τὸ ἔκτος αὐτῶν)을 지지하는 κ²(7세기) (κ*[4세기] 1243[11세기] ἐντὸς for ἔκτος) B2(7세기) C(5세기) L(8세기) W(4-5세기) 0102(7세기) 33(9세기) Byz(9세기 이후) Lect(8세기 이후)는 사본 숫자에 있어 매우 많다.⁹⁾ 4-9세기의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대문자 사본(κ* κ² B²)과 소문자사본(33) 그리고 9세기 이후의 비잔틴 계열의 소문자 사본(Byz)과 8세기 이후의 성구집(Lect)이 동일한 이문을 지지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비잔틴 계열의 대다수 소문자 사본들(그리고 그들의 조상 본문)과 성구집이 시간상으로 보다 앞선 알렉산드리아 계열을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본들은 26절의 ‘잔과 대접’을 복수 대명사(αὐτῶν)로 받기에 문법적으로 매끄럽고 자연스럽다. 그리고 26절의 이런 복수형 표현은 25절의 ‘잔과 대접’과도 조화를 이룬다.

위에서 다룬 세 독법 가운데, 셋째와 넷째는 후대 필사자들이 마태복음 23:26의 ‘잔과 대접’이라는 원문을 의도적으로 ‘잔’으로 단축했다고 보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참고. SBLGNT의 긴 표현).¹⁰⁾ 그런데 셋째와 넷째 독법을 지지하는 사본들 가운데 첫째 독법(‘잔의 속 … 그것의 밖’)을 지지하는 고대 역본(it^a ° syr^s geo)보다 더 후대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소문자 사본(Byz)과 성구집(Lect)이 많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 이유는 고대 역본들이 그리스어 사본을 참고하여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는 경향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CBGM의 원칙을 따른다면 이 질문에 관한 설명이 불가능하지 않다. 고대 역본을 제외하고 본문비평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어 대문자 사본만 고려한다면, 첫째 독법을 지지하는 사본(Θ[9세기])의 연대는 셋째 독법(E*[6세기] G[9세기])과 넷째 독법(κ*[4세

9) 참고. Ibid., 129.

10) W. G. Olmstead, *Matthew 15-28: A Handbook on the Greek Text*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9), 225.

기] W[4-5] C[5세기] S²[7세기] B²[7세기] L[8세기])보다 후대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나타나듯이, CBGM의 가정과 사본상의 지지를 고려하면, 넷째 독법이 가장 원본에 가깝다. 넷째 독법은 고대 대문자 사본과 대다수의 소문자 사본 그리고 성구집의 지지를 끌고루 받기 때문이다.

3. 마태복음 23:26의 내증

3.1. 마태복음 23:13-36의 구조 분석

7화(마 23:13-36)의 구조는 다양하게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합일점은 없다.¹¹⁾ 여기서는 마태복음 23:13-36의 담론분석(談論分析)을 통하여 마태의 사고 흐름(thought flow)을 담아낸 구조를 찾고, 2회 이상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 표지(markers)의 의미를 밝히며, 사고의 작은 단락인 콜론(colon)의 묶음들 간에 나타난 논리적 관계를 밝힌다.¹²⁾ 아래의 담론분석에 비잔틴 계열의 소문자 다수사본이 지지하는 마태복음 23:14는 생략한다.¹³⁾

A: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첫째 화

13절(콜론 1) Οὐαὶ δὲ ὑμῖν, γραμματεῖς καὶ Φαρισαῖοι ὑποκριταί,

(2) ὅτι κλείετε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ῶν οὐρανῶν ἔμπροσθεν τῶν ἀνθρώπων·

(3) ὑμεῖς γὰρ οὐκ εἰσέρχεσθε

(4) οὐδὲ τοὺς εἰσερχομένους ἀφήτε εἰσελθεῖν.

B: 지옥에 들어가는 문제: 둘째 화

15절(5) Οὐαὶ ὑμῖν, γραμματεῖς καὶ Φαρισαῖοι ὑποκριταί,

(6) ὅτι περιάγετε τὴν θάλασσαν καὶ τὴν ξηρὰν

(7) ποιῆσαι ἓνα προσήλυτον,

(8) καὶ ὅταν γένηται ποιεῖτε αὐτὸν υἱὸν γεέννης διπλότερον ὑμῶν.

11) 이 글에서 일곱째 화는 마 23:29-34가 아니라 36절까지로 간주한다. 참고. H. J. B. Combrink, “Die Argumentatieve Structuur van die Ellende-Aankondigings in Matteus 23”, *NGTT* 46:1-2 (2005), 105-113.

12) 2회 이상 반복된 단어인 표지(markers)는 밑줄이나 이탤릭체 혹은 볼드체를 동원하여 제각기 다르게 표시한다. 이 글의 담론분석의 방법은 J. P. Louw, “Discourse Analysis and the Greek New Testament”, *Bible Translator* 24 (1973), 101-118을 보라.

13) 다수사본이 포함하는 마 23:14는 화 설교의 문두에 나타난 전형적인 표현(Οὐαὶ와 γραμματεῖς καὶ Φαρισαῖοι, ὑποκριταί)을 제외하면, 나머지 화들과 어떤 표지도 공유하지 않는다. 다만 14절의 ‘심판’(κρίμα)은 33절의 ‘지옥의 심판’(κρίσις)과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상 유사하고, 15절의 ‘지옥’과도 연결된다.

C: 성전과 금 그리고 제단과 예물의 크고 작음의 문제: 셋째 화

- 16절(9) Οὐαὶ ὑμῖν, ὁδηγοὶ τυφλοὶ οἱ λέγοντες·
 (10) ὅς ἂν ὁμόσῃ ἐν τῷ ναῶ,
 (11) οὐδέν ἐστιν·
 (12) ὅς δ' ἂν ὁμόσῃ ἐν τῷ χρυσοῦ τοῦ ναοῦ, ὀφείλει.
 17절(13) μωροὶ καὶ τυφλοὶ, τίς γὰρ μείζων ἐστίν,
 (14) ὁ χρυσὸς ἢ ὁ ναὸς ὁ ἀγιάσας τὸν χρυσόν;
 18절(15) καί· ὅς ἂν ὁμόσῃ ἐν τῷ θυσιαστηρίῳ,
 (16) οὐδέν ἐστιν·
 (17) ὅς δ' ἂν ὁμόσῃ ἐν τῷ δώρῳ τῷ ἐπάνω αὐτοῦ, ὀφείλει.
 19절(18) τυφλοὶ, τί γὰρ μείζων,
 (19) τὸ δῶρον ἢ τὸ θυσιαστήριον τὸ ἀγιάζον τὸ δῶρον;
 20절(20) ὁ οὖν ὁμόσας ἐν τῷ θυσιαστηρίῳ ὁμνύει ἐν αὐτῷ καὶ ἐν πᾶσιν τοῖς ἐπάνω αὐτοῦ·
 21절(21) καὶ ὁ ὁμόσας ἐν τῷ ναῶ ὁμνύει ἐν αὐτῷ
 (22) καὶ ἐν τῷ κατοικοῦντι αὐτόν,
 22절(23) καὶ ὁ ὁμόσας ἐν τῷ οὐρανῷ ὁμνύει ἐν τῷ θρόνῳ τοῦ θεοῦ
 (24) καὶ ἐν τῷ καθημένῳ ἐπάνω αὐτοῦ.

D: 지키고 버리는 문제: 넷째 화

- 23절(25) Οὐαὶ ὑμῖν, γραμματεῖς καὶ Φαρισαῖοι ὑποκριταί,
 (26) ὅτι ἀποδεκατοῦτε τὸ ἡδύοσμον καὶ τὸ ἄνηθον καὶ τὸ κύμινον
 (27) καὶ ἀφήκατε τὰ βαρύτερα τοῦ νόμου, τὴν κρίσιν καὶ τὸ ἔλεος καὶ τὴν πίστιν·
 (28) ταῦτα [δὲ] ἔδει ποιῆσαι ↗ 여기까지 전반부
 (29) κάκεινα μὴ ἀφιέναι. ↘ 여기서부터 후반부
 24절(30) ὁδηγοὶ τυφλοὶ, οἱ διυλίζοντες τὸν κώνωπα,
 (31) τὴν δὲ κάμηλον καταπίνοντες.

E: 안과 밖의 문제: 다섯째와 여섯째 화

- 25절(32) Οὐαὶ ὑμῖν, γραμματεῖς καὶ Φαρισαῖοι ὑποκριταί,
 (33) ὅτι καθαρίζετε τὸ ἔξωθεν τοῦ ποτηρίου καὶ τῆς παροιψίδος,
 (34) ἔσωθεν δὲ γέμουσιν ἐξ ἀρπαγῆς καὶ ἀκρασίας.
 26절(35) Φαρισαῖε τυφλέ, καθάρισον πρῶτον τὸ ἐντὸς τοῦ ποτηρίου,
 (36) ἵνα γένηται καὶ τὸ ἐκτὸς αὐτοῦ καθαρὸν.
 27절(37) Οὐαὶ ὑμῖν, γραμματεῖς καὶ Φαρισαῖοι ὑποκριταί,
 (38) ὅτι παρομοιάζετε τάφοις κεκονιαμένοις,
 (39) οἵτινες ἔξωθεν μὲν φαίνονται ὠραῖοι,
 (40) ἔσωθεν δὲ γέμουσιν ὁστέων νεκρῶν καὶ πάσης ἀκαθαρσίας.
 28절(41) οὕτως καὶ ὑμεῖς ἔξωθεν μὲν φαίνεσθε τοῖς ἀνθρώποις ἁγῆται,
 (42) ἔσωθεν δὲ ἐστε μεστοὶ ὑποκρίσεως καὶ ἀνομίας.

F: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조상의 후손: 일곱째 화

- 29절(43) Οὐαὶ ὑμῖν, γραμματεῖς καὶ Φαρισαῖοι ὑποκριταί,
 (44) ὅτι οἰκοδομεῖτε τοὺς τάφους τῶν προφητῶν
 (45) καὶ κοσμεῖτε τὰ μνημεῖα τῶν θικαίων,
 30절(46) καὶ λέγετε· εἰ ἤμεθα ἐν ταῖς ἡμέραις τῶν πατέρων ἡμῶν,
 (47) οὐκ ἂν ἤμεθα αὐτῶν κοινωνοὶ ἐν τῷ αἵματι τῶν προφητῶν.
 31절(48) ὥστε μαρτυρεῖτε ἑαυτοῖς
 (49) ὅτι υἱοί ἐστε τῶν φονευσάντων τοὺς προφήτας.
 32절(50) καὶ ὑμεῖς πληρώσατε τὸ μέτρον τῶν πατέρων ὑμῶν.
 33절(51) ὄφεις, γεννήματα ἐχιδνῶν, πῶς φύγητε ἀπὸ τῆς κρίσεως τῆς γεέννης;
 34절(52) Διὰ τοῦτο ἰδοὺ
 (53) ἐγὼ ἀποστέλλω πρὸς ὑμᾶς προφήτας καὶ σοφοὺς καὶ γραμματεῖς.
 (54) ἐξ αὐτῶν ἀποκτενεῖτε καὶ σταυρώσετε
 (55) καὶ ἐξ αὐτῶν μαστιγώσετε ἐν ταῖς συναγωγαῖς ὑμῶν
 (56) καὶ διώξετε ἀπὸ πόλεως εἰς πόλιν.
 35절(67) ὅπως ἔλθῃ ἐφ’ ὑμᾶς πᾶν αἷμα θικαίων ἐκχυνόμενον ἐπὶ τῆς γῆς ἀπὸ τοῦ
 ὑ αἵματος Ἀβελ τοῦ θικαίου ἕως τοῦ αἵματος Ζαχαρίου υἱοῦ Βαραχίου,
 (58) ὃν ἐφρονεύσατε μεταξὺ τοῦ ναοῦ καὶ τοῦ θυσιαστήριου.
 36절(59)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60) ἥξει ταῦτα πάντα ἐπὶ τὴν γενεὰν ταύτην.

마태복음 23:13-36은 총 23절에 걸쳐 60개의 콜론으로 구성된다.¹⁴⁾ 전반부와 후반부에 걸쳐 동일한 단어가 2회 이상 등장하는 수직적 표지는 총 8개다. Οὐαὶ(화있다, 콜론 1, 5, 9, 25, 32, 37, 43; 총 7회), γραμματεῖς καὶ Φαρισαῖοι ὑποκριταί(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콜론 1, 5, 25, 32, 37, 43, 총 5회; 참고. 콜론 35, 42, 53), τυφλοὶ(맹인, 콜론 9, 13, 18, 30, 35; 총 5회), γεέννης(지옥, 콜론 8, 29; 총 2회), υἱοί(아들, 콜론 8, 49, 57; 총 3회), ὁδηγοὶ(인도자, 콜론 9, 30; 총 2회), κρίσεως(의/심판, 콜론 27, 51; 총 2회), ναός(성전, 콜론 10, 12, 14, 21[x2], 58; 총 6회), θυσιαστήριον(제단, 콜론 15, 17, 19, 20[x3], 58; 총 7회).

이상의 수직적 표지들을 요약한 마태의 중심 사상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위선자와 맹인으로서 인도자 노릇하기에 성전과 제단을 두고(거짓 맹세하며)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 심판과 화를 받는다.’이다.

14) 참고로 마 23:14를 제외한 채 마 23:13-36을 총 34개 콜론으로 나누고, 13-15절(첫째 화와 둘째 화), 16-22절(셋째 화), 23-28절(넷째 화-여섯째 화), 29-36절(일곱째 화)로 단락을 나눈 경우는 B. C. Lategan, “Matthew 23”, *Neotestamentica* 16:1 (1982), 38-41을 보라.

전반부나 후반부에 한 단어가 2회 이상 지엽적으로 등장하는 수평적 표지는 총 21개이다. οὐρανῶ(하늘, 콜론 2, 23; 총 2회), εἰσελθεῖν(들어간다, 콜론 3, 4[x2]; 총 3회), ποιεῖτε(만들다, 콜론 7, 8, 28; 총 3회), ἀμνύει(맹세하다, 콜론 10, 12, 14, 17, 20[x2], 21[x2], 23[x2]; 총 10회), χρυσός(금, 콜론 12, 14[x2]; 총 3회), μεῖζον(더 크다, 콜론 13, 18; 총 2회), δώρον(예물, 콜론 17, 19[x2]; 총 3회), θρόνω(보좌, 콜론 23, 24; 총 2회), ἀφιέναι(버리다, 콜론 27, 29; 총 2회), ἔσωθεν(밖, 콜론 33, 39, 41, 42; 총 4회), ἔσωθεν(안, 콜론 40, 42; 총 2회), ποτηρίου(잔, 콜론 33, 35, 36; 총 3회), καθαρόν(깨끗하다, 콜론 33, 35, 36; 총 3회), φαίνεσθε(보이다, 콜론 39, 41; 총 2회), τάφοις(무덤, 콜론 38, 44; 총 2회), ἴκασι(의로운, 콜론 41, 45, 57[x2]; 총 4회), προφήτας(선지자들, 콜론 44, 47, 49, 53; 총 4회), πατέρων(조상, 콜론 46, 47, 50; 총 3회), πόλιν(도시, 콜론 56[x2]; 총 2회), φονευσάντων(살해하다, 콜론 49, 58; 총 2회), αἶμα(피, 콜론 47, 57[x3]; 총 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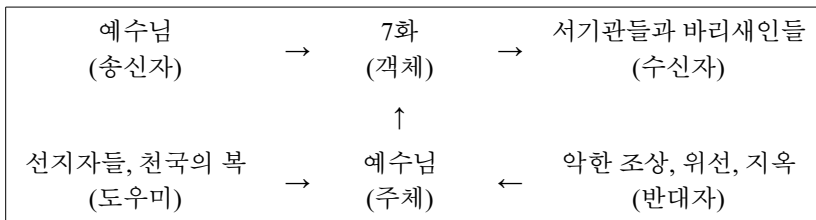
이상의 수평적 표지들을 요약한 마태의 중심 사상은 ‘(바리새인들은) 하늘을 담아 들어가지 않고, 하늘과 보좌와 예물과 (성전의) 금을 두고 맹세하며, 조상들이 죽였던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만들고, 밖을 아름답고 의롭게 꾸몄는데, 오히려 잔의 안과 밖을 깨끗하게 해야 하고, 십일조와 (그것의 정신을) 버리지 말아야 하며, 도시마다 (다니며 주님이 보낸 사람들을 박해한다.)’이다. 따라서 다수의 수평적 표지는 바리새인들의 여러 악행상을 상세하게 언급하면서 소수의 수직적 표지의 의미를 보완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절	콜론	주제	관계
13	1-4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첫째 화
15	5-8	지옥에 들어가는 문제	둘째 화
16-22	9-24	성전과 금 그리고 제단과 예물의 크고 작음의 문제	셋째 화
23-24	25-31	지키고 버리는 문제	넷째 화
25-28	32-42	안과 밖의 문제	다섯째와 여섯째 화
29-36	43-60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조상의 후손	일곱째 화

7화는 정결-부정 주제로 서로 맞물려 있다. 넷째 화(23:24)에 따르면, 맹인인 바리새인들은 포도주가 담긴 뚜껑 마개가 없는 병에 물려든 하루살이 부정한 곤충(참고. 레 11:23, 41)은 채로 걸러내지만, 팔레스타인에서 육상 동물 가운데 가장 크지만 부정한 낙타는 허용하여 삼킨다(참고. 레 11:4).

뒤따르는 다섯째 화(23:25-26)도 정결과 부정을 다룬다.¹⁵⁾ 26절의 결론적 논리에 따르면, 먼저 사람의 속이 정결하면 밖도 정결하게 된다(참고. 마 15:11, 19-20). 그 뒤의 여섯째 화(23:27-28)도 정결과 부정(무덤, 시체, 더러운 것들)을 다룬다. 그리고 일곱째 화(23:29-36)는 바리새인들의 부정한 내면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다룬다.

마태복음 23:13-36은 부정한 바리새인들이 천국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지옥을 선택한 문제를 시작(AB)과 끝에서(F)에서 다룬다. 이와 더불어 천국과 지옥의 대조는 물론, 크고 작음(C), 지킴과 버림(D), 그리고 안과 밖(E)이라는 대조적 병행도 나타난다. 마태는 이런 문학적 기법을 통해 1차 독자들이 별 어려움 없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닮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다. 7화의 본문 아래에 흐르는 저자가 품은 의도를 밝히는 심층 구조를 6개의 행위자(actant) 모델로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위의 심층 구조에 따르면, 예수님은 7화를 바리새인들에게 선언하실 뿐 아니라 주체로서 7화를 집행하신다.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위한 사역자들인 구약과 신약의 참 선지자들(23:34)과 달리 악한 조상의 전철을 따르며 위선과 지옥의 행태로써 주님을 대적한다. 마태복음 23:13-36의 표층과 심층 구조 분석의 결론은 26절의 이문 6개 가운데 의미가 불확실한 마지막 이문을 제외하면 의미가 적절히 통한다. 7화는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지적하고 독자들에게 경계를 주기 때문이다.

3.2. 마태복음 23:26의 문맥

마태는 예수님의 마지막 다섯 번째 설교 꾸러미를 마태복음 23-25장에 풀어 배치한다.¹⁶⁾ 그 가운데 마태복음 23장은 불신 유대인 지도자들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심판을 ‘7화’(23:13-36)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15) R. T. France, *The Gospel of Matthew*, NICNT (Grand Rapids: Eerdmans, 2007), 874.

16) 학적 논문에 ‘예수님’도 가능하기에, 한글 존칭어법을 따라 그대로 표기한다.

마태복음 23장 이전 맥락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여러 번 대적한 바 있다(12:38; 15:1; 21:15, 45; 22:15, 34).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후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갈등은 절정으로 치닫는다(21:38, 46).

위의 담론분석에서 살핀 대로, 첫 두 화는 천국(23:13; 참고. 23:22)과 지옥(23:15)을 대조함으로써,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천국은 닫고 지옥을 여는 행태를 비판한다.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는 자인 마귀처럼(마 4) 세금납부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신 바 있다(22:18). 그런데 예외적으로 ‘위선자’가 생략된 셋째 화에서 동사 ‘맹세하다’(ὀμνύω)는 무려 10회나 반복되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크고 작음에 대한 잘못된 구분을 비판하신다(성전과 금, 제단과 예물, 성전과 하나님, 하늘과 보좌 위의 하나님, 13:16-22). 일곱 화의 중앙에 위치한 넷째 화는 십일조 준수에 나타난 더 중요한 율법 정신을 버리는 가식을 다룬다(23:23-24; 참고. 창세기 라바 63:10).¹⁷⁾ 셋째-다섯째 화에서 바리새인들은 다름 아닌 ‘맹인’이다(마 23:16, 17,¹⁸⁾ 18, 24, 26; 참고. 사 42:6-7). 그리고 다섯째 화(마 23:25-26)와 여섯째 화(23:27-28)에서 안과 겉의 대조가 공통점이다.

가장 길게 언급된 일곱째 화에 무덤, 살인, 피, 십자가 처형, 독사, 그리고 지옥과 같은 심판 용어들이 넘쳐난다(23:29-36). 바리새인들은 구약시대에 죽임당한 의로운 선지자들을 위해 무덤과 비석을 만듦으로써, 그들의 조상의 악행과 단절을 꾀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악한 살인을 일삼은 조상의 후손됨이라는 친자 확인만 할 뿐이다(23:35; 참고. 21:38). ‘독사의 새끼들’(23:33)인 바리새인은 첫째 화와 둘째 화가 지적한대로 천국 문을 닫고(23:13) ‘지옥 자식’(23:15)을 만든다. 따라서 7화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대조적 병행을 가진 포괄식 구조를 보인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여섯째 화에서 ‘회칠한 무덤’이라 비판받았는데(23:27), 그들이 만든 선지자들의 무덤도 가식적이다(23:29). 또한 회칠한 무덤 안의 ‘사람의 뼈’(23:27)도 살인과 맞물린다(23:31, 34). 그리고 일곱째 화의 ‘살인’과 ‘선지자’(23:31, 34)는, 살인자인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하

17) M. Weinfeld, “The Charge of Hypocrisy in Matthew 23 and in Jewish Sources”, *Immanuel* 24-25 (1990), 56-57.

18) 공동체 내부의 형제를 ‘어리석은 자’(ῥακκά)라고 부르지 말라는 마 5:22-23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어리석은 맹인’으로 부르신 것은 그들을 외부인 취급하는 것이다. H. J. B. Combrink, “Shame on the Hypocritical Leaders in the Church: A Socio-Rhetorical Interpretation of the Reproaches in Matthew 23”, D. B. Gowler et al., eds., *Fabrics of Discourse: Essays in Honor of Vernon K. Robbins*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3), 4.

는 단락, 즉 뒤따르는 단락인 37절로 이어진다. 그리고 종교지도자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의 파멸은 마태복음 24:1-34에서 길게 예고된다.

마태복음 23:26의 근접 문맥인 21-24장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갈등은 점증하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닥칠 화와 심판을 연이어 설명하신다. 그러므로 이런 문맥은 26절의 의미가 불확실한 마지막 독법을 제외한 첫째-다섯째 독법의 의미에 부합한다.

3.3. 마태의 문체와 문법 사항에서 본 마태복음 23:26

먼저 단어의 수(數) 문제를 살펴보자. 마태복음 23:17, 19절은 ‘복수형’ 호격 ‘맹인들아’(τυφλοί)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 독법이 지지하듯이, 마태복음 23:26의 ‘단수형’ 호격 두 명사 ‘바리새인 맹인아’(Φαρισαῖε τυφλέ)는 뒤따르는 하나의 ‘단수형’ 명사(τοῦ ποτηρίου)와 ‘단수형’ 대명사(αὐτοῦ)에 적합하도록 의도적으로 조절한 표현으로 보인다.¹⁹⁾ 하지만 마태복음 23:26 마지막 단어인 ‘중성 단수’ 주격 형용사(καθαρόν)는 다수사본(넷째 독법)의 중성 명사 ‘잔’과 여성 명사 ‘대접’에 어색하다. 그리고 주어 ‘잔과 대접’의 동사인 아오리스트 디포넛트 가정법 ‘3인칭 단수’ 동사(γένηται)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마태가 즐겨 사용하는 병행 혹은 쌍(pair) 기법은 내증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첫째와 둘째 독법처럼, ‘잔’은 ‘대접’을 포함하는 대표 명사격으로 볼 수 있는가? 마태는 둘이라는 쌍 기법을 애용하는데(예. 1:1; 8:28; 21:2), 7화에서도 이런 기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성전과 금’ 그리고 ‘제단과 예물’(23:16-18), ‘뱀들과 독사의 자식들’(23:33)이 좋은 예들이다. 여기에다 범위를 넓혀 첫 세 화(마 23:13-22)는 바리새인의 거짓 가르침을 비판하고, 뒤따르는 세 화(마 23:23-28)는 거짓 관행을 비판하기에, 여기서 큰 쌍 기법을 찾을 수 있다.²⁰⁾ 그렇다면 26절의 셋째부터 여섯째 독법들처럼 ‘잔’과 ‘대접’이 쌍으로 나타나는 것은 마태의 문학적 기법에 잘 어울린다. 이런 쌍 기법에서 볼 때, 마태가 잔으로 마시는 행위로서 대접으로 먹

19) J. Nolland, *The Gospel of Matthew*,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5), 940; R. T. France, *The Gospel of Matthew*, 875.

20) F. P. Viljoen, “The Controversy Dialogue Leading towards Jesus’ Severe Response in Matthew 23”, *In die Skriflig* 52:1 (2018), 6. 참고로 마 23:25의 ‘잔과 대접’이 26절의 셋째-여섯째 독법들의 ‘잔과 대접’에 영향을 미쳤다면, 25절과 26절에도 쌍과 병행 기법이 나타난다. W. D. Davies and D. C. Allison Jr.,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tthew*, ICC (Edinburgh: T&T Clark, 1997), 299.

는 행위 전체를 가리키는 제유법을 활용했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3.4.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과 주요 신학에서 본 마태복음 23:26

마태복음은 총 1,071절인데, 전반부 마태복음 1:1-16:12는 540절로 약 50% 분량이다. 이런 분량을 고려할 때, 마태는 16:13-17:13을 중심으로 삼는 교차대칭구조를 통해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한다. 아래 표는 이 사실을 보여준다.²¹⁾

- A 왕의 탄생과 입(入)애굽 그리고 나사렛 정착(1:1-4:16)
- B 왕의 천국 선포(4:17-16:12)
- C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16:13-17:13)
- B' 천국 안에서 사는 방법에 대한 교훈(17:14-25:46)
- A' 왕의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왕의 명령(26:1-28:20)

마태복음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대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소개한다(마 1:1; 4:17). 이런 기록 목적에 기초하여, 마태복음의 주요 신학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과 언약을 성취하셔서 도래시키신 이방인을 포함한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이다(1:1; 13; 23:13; 28:18-20).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게서 구원하실 ‘예수’(1:21)는 7화에서 바리새인들의 내면의 죄와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촉구하신다.²²⁾ 그래서 예수님은 7화의 대상인 바리새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 바리새인들이 내면의 착취와 방종을 포기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그들은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뵈고(마 5:8, 20), 보화는 하늘나라를 위해 쌓아야 하며(6:20),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인 정의와 자비와 신실함을 배워야 한다(23:23).²³⁾

바리새인들이 정결의 외적 차원만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제의 및 일상의 정결 규정에 담긴 내적 차원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맹인임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사람을 의식하여 외적 정결에 집중한 나머지 바리새인의 내면은 탐욕(ἀρπαγή, 강도 짓)과 자기 절제에 실패한 방탕(ἀρπασία)으로 가득하다(마 23:25). 유대인의 전통에 충실한 바리새인의 외면적 정결과 의로움은 자

21) S. J. Kidder,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The Theme of the Chiastic Structure of the Gospel of Matthew”, *JATS* 26:2 (2015), 153, 163.

22) G. 마이어, 『마태복음』, 송다니엘 역 (서울: 진리의 것밭, 2017), 798.

23) M. J. Wilkins, *Matthew* (Grand Rapids: Zondervan, 2004), 754.

신들의 내면적 더러움과 불의를 감추는 수단에 불과했는데, 예수님은 이런 위선을 다 드러내신다.²⁴⁾ 7화에서 마태가 사용하는 반복을 통한 점진적 강화라는 기법을 고려한다면, 25절의 탐욕과 방탕은 28절의 ‘불법’(ἀνομία)과 다를 바 없다(23:28). 결국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데 실패했다(마 6:33).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의 1차 독자인 마태공동체를 미혹하고 착취했던 유대인들을 투영하고, 더 나아가 마태공동체의 부패한 지도자들을 투영할 수도 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바리새인들의 부정적인 측면은 마태공동체에게 반면교사가 되었다.²⁵⁾ 따라서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과 주요 신학은 왕이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인데, 이를 거부한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26절의 의미가 불확실한 여섯째 독법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이문들의 취지에 부합한다. 다만 잔만의 속과 밖의 불일치로 표현되든, 아니면 잔과 대접 모두의 속과 밖의 표리부동으로 나타나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알리는 데 있어 의미상 별 차이는 없다.

3.5. 요약

마태복음 23:26의 내증 가운데 마태의 문체는 셋째-여섯째 독법을 더 지지하지만, 구조와 문맥과 기록 목적 및 주요 신학으로는 원본에 어떤 독법이 더 가까운지를 결정하기 어렵다.

4. 마태복음 23:26의 상호본문

4.1. 내적 상호본문(intratexts)

예수님은 셋째-다섯째 화에서 바리새인들을 ‘맹인’이라 부르신다(23:16, 19, 24, 26). 마태복음 7:5의 바리새인의 위선에 대한 경고는 그들이 영적인 맹인을 암시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의 서기관’인데(13:52), 예수님은 그들을 마음이 더럽고 영적으로 눈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가르치던 유대인들에게 파송하신다(23:34). 그러나 맹인과 서기관은 26절의 본문비평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24) D. L. Turner, *Matthew*, BECNT (Grand Rapids: Baker, 2008), 557; 김충연, “마태복음의 δίκαιος 연구: 마태복음 1:18-25와 23:27-36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25:2 (2018), 257.

25) H. J. B. Combrink, “Shame on the Hypocritical Leaders in the Church”, 12.

마태복음 23:26처럼 15:10-11은 사람이 행하는 악의 뿌리를 마음이라고 설명한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깨끗하게 된다면 그의 겉도 깨끗해진다.²⁶⁾ 그리고 마태복음 23:25-26은 근접 구절인 23-24절과 27-28절과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의 ‘안과 밖’을 대조하기 위해 문자적 의미와 은유적 의미를 혼용한다. 문자적으로 바리새인들은 하루살이(23:24)를 걸러 내었고,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씻었으며(23:25), 유월절 무렵에 무덤에 회칠했고(23:27),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장식했다(23:29). 그리고 은유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뱀들이자 독사의 자식들이며(23:33), 자신의 목구멍으로 부정한 낙타를 삼켰는데(23:24), 먼저 잔 곧 자신의 속을 깨끗이 해야 했다(23:26).²⁷⁾ 참고로 미쉬나에 나타난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잔의 겉만 씻는 경우는 없었으므로, 바리새인들이 잔의 속을 씻지 않았음을 던지시 암시하는 마태복음 23:26은 은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²⁸⁾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정결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가르쳤지만, 완전히 실천하지 못했기에 ‘위선자들’이라 불리는가?²⁹⁾ 아니면 바리새인들은 거짓 선생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로막는 율법주의적 제의주의(legalistic ritualism)에 빠짐으로써, 율법의 정신을 잘못 해석하여 자연스럽게 실천에도 오류를 보였는가?³⁰⁾ 둘 가운데, 26절의 근접 문맥은 전자를 지지한다. 26절의 근접 문맥에 위치한 마태복음 23:3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구약에 합치되게 가르친 바를 실천하라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행함이 없는 점이 문제였다. 요약하면, 악의 근원인 마음과 바리새인의 외식 그리고 무실천은 26절의 6개 독법 모두에 적합하다.

몇몇 주석가들은 8복(마 5:3-10)과 8화의 대조적 병행에 주목한다.³¹⁾ 이런 병행은 그리스어 소문자 다수사본이 지지하듯이 둘째 화인 마태복음 23:14가 원문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성립된다. 8화를 연이어 읽어 가

26) G. 마이어, 『마태복음』, 798.

27) K. G. C. Newport, *The Sources and Sitz im Leben of Matthew 2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145.

28) H. Maccoby, “The Washing of Cups”, *JSNT* 14 (1982), 5.

29) K. G. C. Newport, *The Sources and Sitz im Leben of Matthew 23*, 147.

30) D. E. Garland, *The Intention of Matthew 23* (Leiden: Brill, 1979), 159-160.

31) C. Rohmer, “Le Bonheur selon Matthieu: Perspectives (Mt 5) et Contre-Perspectives (Mt 23)”, *Revue Théologique de Louvain* 50:3 (2019), 362-381. Contra R. T. France, *The Gospel of Matthew*, 865. 그리고 마 13장의 7비유에서 보듯이 마태가 숫자 ‘8’이 아니라 ‘7’을 선호한다고 보는 C. S. Keener,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Eerdmans, 1999), 547. 그러나 마 5장은 8복을 소개하고, 마 13장에서 13:51-52를 천국의 서기관 비유로 본다면 8개의 비유를 찾을 수 있다.

면, 바리새인들이 약탈했던(23:25) ‘과부’(23:14)는 십일조의 수혜 대상이다 (23:23; 참고. 신 14:28-29).³²⁾ 23:14를 원본에 포함된 둘째 화로 본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 있다’라는 여섯째 복(마 5:8)과 ‘마음속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바리새인들에게 화있다’라는 여섯째 화 (23:25-26)는 적절히 대조된다. 다시 말해, 천국 백성의 청결한 마음과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악한 마음이 대조된다. 그럼에도 사본의 증거상 마태복음 23:14를 원본으로 보기 어렵다. 마태복음의 8복과 7화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³³⁾

마 5장의 명예로운 8복	마 23장의 수치스런 7화
2인칭 무리와 제자들에게	3인칭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공 사역 시작 무렵	예수님의 공 사역 끝자락
천국을 소유함(3, 10절)	천국 문을 닫음(13절)
의에 주립(6절)	겉으로 의로움(28절)
궁홀히 여기는 자는 궁홀을 받음(7절)	궁홀을 무시함(23절)
마음이 청결한 사람(8상반절)	속은 더러움(27절)
하나님을 봄(8하반절)	하나님의 보좌로 맹세함(22절)
하나님의 아들들(9절)	지옥의 자식(15절)
선지자들처럼 박해받음(12절)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31절)

위의 병행과 대조는 마태복음의 독자로 하여금 8복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화 선언을 읽도록 도왔을 수 있으며,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올바른 지식과 행실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명예로운 분임을 강조한다. 이 사실은 26절의 여섯 이문들 모두의 의미와 적절하게 연결된다.

내적 상호본문성의 범위를 좀 더 넓혀보면, 산상설교(마 5-7장)와 23:13-36과 감람산설교(마 24-25장)는 몇 가지 유사성과 병행을 보인다.³⁴⁾ (1) 8복이 산상설교의 서론 격이라면, 7화(혹은 8화)는 감람산설교의 서론과 같다. (2) 이 두 설교는 분량에 있어 각각 세 장으로 유사하다. (3) 두 설교는 산과

32) 참고. B. J. Malina and R. L. Rohrbaugh, *Social-Science Commentary on the Synoptic Gospels* (Minneapolis: Fortress, 1992), 144-145.

33) J. Hood, “Matthew 23-25: The Extent of Jesus’ Fifth Discourse”, *JBL* 128:3 (2009), 540; H. J. B. Combrink, “Shame on the Hypocritical Leaders in the Church”, 33.

34) F. P. Viljoen, “The Controversy Dialogue Leading towards Jesus’ Severe Response in Matthew 23”, 2.

관련 있으며 예수님은 거기서 가르치시는 교사로 나타난다(마 5:2; 24:3). (4) 예수님은 새 모세로서 율법을 다시 해석하여 가르치시며, 율법 해석과 실천에 나타난 잘못된 관행을 교정하신다(마 5:17; 23:23). 그러나 이런 여러 병행도 26절의 본문비평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시하지 않는다.

감람산설교의 근접 문맥에 위치한 두 아들 비유(마 21:28-32)와 다섯째와 여섯째 화(마 23:25-28) 사이의 병행은 아래와 같다.³⁵⁾

두 아들 비유(마 21:28-32)	두 화(마 23:25-28)
겉과 속이 다른 두 아들(21:28-30)	깨끗한 겉과 더러운 속(23:25, 27)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세리와 창기(21:31-32)	세리와 같은 착취 행위와 창기와 같은 방종 행위(23:25)
의의 길(21:32)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임(23:28)

위의 도표는 마태가 즐겨 사용하는 쌍 기법과 대조를 보여주며(참고. 26절의 셋째-여섯째 이문), 바리새인들이 회개한 세리와 창기처럼 겉과 속을 일치시켜 의의 길을 걸어야 함을 교훈한다.

복음서는 주인공인 예수님의 내러티브를 통해 1차 독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공동체의 모습을 투영한다. 그렇다면 마태공동체와 그 당시 유대교의 유산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마태공동체와 로마제국의 관계는 어떠한가? 유대교의 형식주의를 경계해야 했던 마태공동체가 맞선 바리새인(랍비유대교)의 강탈과 방종과 착취는 로마제국의 횡포와 유사했다. 바리새 랍비유대교와 로마제국은 마태공동체와 같은 소수의 약자들의 소유를 강탈하여 자신의 관능과 쾌락을 위해 사용했다. 예루살렘 둘 성전의 파괴로 사취(詐取)와 관능의 화신이었던 사두개인이 몰락했지만(마 23:38; 24:2),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여백을 매웠다.³⁶⁾ 그러므로 대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던 천국의 서기관들과 같은 마태공동체는 마태복음 안에 내적 상호본문들과 연결된 7화를 통하여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로마제국에 맞서야 했다. 이 사실은 26절의 여섯 독법들의 의미와 적절하게 연결된다.

35) J. J. Scholtz,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A Chiastic Structure for Matthew 21:1-23:39", *In die Skriflig* 48:1 (2014), 3, 6.

36) 참고. F. D. Bruner, *The Churchbook: Matthew 13-28* (Grand Rapids: Eerdmans, 2007), 450.

4.2. 성경 내적 상호본문(inner biblical intertexts)

4.2.1. 구약

마태복음 23:26의 ‘대접’(παροψίς)은 전치사 παρά와 명사 ὄψον(음식)의 합성어로 풍미(relish), 요리(dish), 맛있는 음식(exquisite food), 그리고 τρύβλιον(bowl, 마 26:23)보다 덜 깊고 평평한 접시(flat dish)라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³⁷⁾ 그런데 마태복음 23:26의 원본에 ‘대접’(παροψίς)이 없다면, 이 명사는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 23:25에만 한 번 등장하여 비교할 관련 본문이 없기에 ‘대접’의 의미를 결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히브리어 신약성경(DLZ)이 마태복음 23:25에서 사용하는 명사 ‘대접’(הַקֶּקֶט)은 구약성경(MT)에 17회 등장한다(출 25:29; 37:16[LXX 38:12]; 민 4:7; 7:13, 19, 25, 31, 37, 43, 49, 55, 61, 67, 73, 79, 84, 85).³⁸⁾ 성소의 진설병과 관련된 기구들을 설명하는 출애굽기 25:29 LXX와 38:12 LXX(37:16 MT)에서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평평한 접시인 παροψίς가 아니라 더 깊게 파인 접시를 가리키는 τρύβλιον으로 번역한다. 따라서 הקֶּקֶט는 평평한 접시와 깊이 파인 접시 둘 다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29와 37:16은 ‘대접’과 ‘잔’을 함께 언급한다. 이것은 마태복음 23:26의 셋째부터 여섯째 독법들과 유사하다.

구약의 정결 규정에 따르면,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용기는 안과 밖 모두가 부정하게 되었다(레 11:33-35; 민 19:15; 참고. 11QT 49:8-10). 이 규정에 따라 힐렐학과와 샴마이학과도 용기의 외부만 아니라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데 관심을 두었다.³⁹⁾ 하지만 외적인 제의적 정결에 큰 관심을 둔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은 용기의 바깥만 더러워진 경우, 안의 내용물을 버릴 필요가 없다고 안과 밖을 미묘하게 구분하기도 했다(참고. 4QMMT).⁴⁰⁾ 예수님의 눈에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 안에 있던 약자에게서 강탈한 착취물과 성적인 방종을 비롯한 부도덕한 무절제(23:25)를 정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참고. 막 12:40; 눅 16:14).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강탈과 무절제를 합리화하기보다 포기한다면, 그들은 종교 의식이나 제의적 정결을 준수하지 않고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정결이란 궁극적으로 내면 곧 마음의 문제이며(26절), 내면적 정결은 외면적으로 정결한 윤리의 실천으로 나타

37) J. P. Louw and E. A. Nida, ed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Volume 1 (Cape Town: BSSA, 1993), 70; F. Montanari, *The Brill Dictionary of Ancient Greek* (Leiden: Brill, 2015), 1590.

38) 참고. F. Brown, ed., *The New Brown-Driver-Briggs-Genesius Hebrew and English Lexicon* (Peabody: Hendrickson, 1979), 891.

39) 참고. U. Luz, *Matthew 21-28*,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05), 127.

40) G. 마이어, 『마태복음』, 797; U. Luz, *Matthew 21-28*, 127.

나야 마땅하다고 교훈하신다. 이에 맞춰, 마태는 25절의 ‘겉과 속’, 그리고 26절의 ‘속과 겉’이라는 교차대칭구조를 통해 중앙의 ‘속’을 강조한다.⁴¹⁾ 이 사실은 26절의 첫째-다섯째 이문에 적절히 연결되는데, 여섯째 독법은 마지막에 ‘밖’을 언급하지 않는다.

4.2.2. 신약

마태복음 23:26이 속한 7화의 공관복음서 안의 상호본문은 누가복음 11:39-52인데 6화와 관련 내용을 설명한다. 이 두 단락 간의 병행은 아래 표와 같다.⁴²⁾

마 23:4-7, 13-36	눅 11:39-52
짐(4)	짐(넷째 화, 46)
자리와 인사(6-7)	자리와 인사(둘째 화, 43)
열쇠(첫째 화, 13)	열쇠(여섯째 화, 52)
개종자(둘째 화, 15)	없음
맹세(셋째 화, 16-22)	없음
십일조(넷째 화, 23-24)	십일조(첫째 화, 42)
잔과 대접(다섯째 화, 25-26)	잔과 대접(39)
무덤(여섯째 화, 27-28)	무덤(셋째 화, 44)
살인(일곱째 화, 29-36)	살인(다섯째 화, 47-48)

위의 표에서 보듯이, 마태의 다섯째 화의 잔과 대접(마 23:27-28)은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등장한다(눅 11:39). 마태의 7화는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의 4화와 상호본문이다(눅 6:24-26). 누가가 비판하는 부유한 자(눅 6:24)와 배부른 자(눅 6:25)는 마태가 23:25에서 비판하는 약자를 착취하는 대명사인 화를 당할 바리새인들과 병행을 이룬다(참고. 마 24:14). 이 사실은 마태복음 23:26의 6개 독법 모두에 적절하다.

바울은 법정에서 수사학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름으로써 극도의 모욕을 가한 바 있다(행 23:3; 참고. 마 23:27).⁴³⁾ 그런데 ‘무덤’과 ‘죽은 자들의 뼈’가 언급된 여섯째 화(마 23:27-29)는 마치 ‘애가’(哀歌)와 같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수사학교는 죽음과 장례에 대한 애가를 많이 다루었다. 그렇다면 여섯째 화(마 23:27-29)

41) G. R. Osborne, *Matthew*,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0), 852.

42) H. J. B. Combrink, “Shame on the Hypocritical Leaders in the Church”, 29.

43) A. R. Simmonds, “Woe to You...Hypocrites!: Re-Reading Matthew 23:13-36”, *Bibliotheca Sacra* 663 (2009), 344.

처럼 안과 밖의 불일치 문제를 다루는 다섯째 화(23:25-26)도 애가의 빛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이런 상호 본문성의 여지는 마태복음 23:26을 요한계시록 17-18장의 애가와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음녀 바벨론은 부정한 것들로 가득한 ‘금잔’을 가지고 있다(계 17:4; 참고. 마 23:25-26). 음녀 바벨론은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들로 가득한 소굴이므로 재앙과 화를 당하여 패망한다(계 18:2; 참고. 마 23:25). 그리고 그 음녀는 하나님의 ‘7대접’의 심판을 받는다(계 16; 참고. 마 23:25-26). 요한계시록의 대부부의 내용을 AD 1세기 상황에서 성취된 것으로 이해하려는 부분적 과거론적 해석에 따르면, 음녀 바벨론은 로마제국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같은 불신 유대인들을 가리킨다.⁴⁴⁾ 이 사실도 26절의 6개 독법 모두에 적절하다.

4.3. 성경 외적 상호본문(extratexts)

바리새파 출신인 요세푸스는 유대고대사 18.1.12-15에서 바리새인들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묘사한다. “그들의 생활은 단순하고 사치와 낭비를 싫어했으며 … 말과 행동에서 온전한 도덕적 모습을 보였기에 유대인들에게 큰 신뢰를 주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진술은 마태복음 23:25-26과 사뭇 다르다. 그렇다면 요세푸스와 예수님(그리고 마태) 간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외적으로 제의 규정을 열심히 준수하지만 그것이 실제 삶과 차이가 있음을 비판하신다.⁴⁵⁾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제의 및 일상의 정결 규정을 외형상 준수하는 것과 그들의 마음의 악행을 대조하신다(마 23:25-28). 그런데 요세푸스와 유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일삼은 것처럼 보이는 강도짓과 방종을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마 23:25, 28), 예수님께서 정결 규정을 성취하심을 믿지 않은 채 그들이 스스로 정결 규정을 준수하려고 시도한 행위를 비판하시는가?⁴⁶⁾ 앞에서 살핀 대로, 예수님의 화 선언에는 문자적 그리고 은유적 측면이 혼재한다. 따라서 예수님의 화 선언을 은유적으로만 해석하여 바리새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삼가야 한다.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과 관습을 반영하는 미쉬나의 마태복음 23:26 관

44) K. L. Gentry Jr., *The Divorce of Israel: A Redemptive-Histor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Revelation*, Volume 2 (Dallas: Tolle Lege, 2017), 391.

45) 참고. J. van Bruggen, *Matteüs: Het Evangelie voor Isaraël*, CNT (Kampen: Kok, 1990), 411-412.

46) *Ibid.*, 412.

런 본문들도 중요하다. 키너(C. S. Keener)에 따르면, 삼마이는 용기의 안이든 밖이든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양면을 씻어야 하며 사람은 용기를 사용하기 전에 세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힐렐은 용기의 밖은 안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안을 먼저 씻어야 한다고 보았다.⁴⁷⁾ 그러나 힐렐학과와 삼마이학파는 공통적으로 잔의 속이 부정한 액체에 오염되면 그 밖도 부정하게 되지만, 잔의 밖만 오염되었다면 속은 정결하다고 인정했다(Shabbat 13-14).⁴⁸⁾ 미쉬나는 잔의 속(내용물)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하다고 규정하기에, 속이야말로 결정적 요소라고 간주한다. 이런 상호본문성은 26절의 6개 독법 모두에 적절하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기 위해 의와 자비와 믿음에 헌신하는 길로서 정결법을 강조했지만, 마태는 그들의 정결 규례에 대한 해석은 물론 그들의 나쁜 신앙의 행태를 고발한다.⁴⁹⁾ 이런 고발과 유사한 맥락은 <모세의 승천기> 7:7-10에도 나타난다.⁵⁰⁾ 바리새인들은 단지 해충(害蟲)처럼 일출 때부터 일몰 때까지 불법과 범죄를 저지르지만, 불경건한 자신의 모습은 숨기려고 애쓴다(모세의 승천기 7:7). 그리고 그들은 “왕자와 같은 우리에게 연회, 화려함, 먹고 마심이 있다”라고 말한다(모세의 승천기 7:8). 또한 그들은 손과 마음으로 부정한 것들을 만지더라도, 입으로 엄청난 것들을 떠벌리며 말할 것이다(모세의 승천기 7:9). 심지어 그들은 “내가 있는 곳에서 당신이 나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으려거든 나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할 것이다(모세의 승천기 7:10).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리새인들이 ‘손’은 물론 ‘마음’으로도 부정한 것을 만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밖과 안은 모두 부정에 물들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부정의 탓을 자신을 만지는 남에게 돌린다. 그런데 이런 외적 상호본문성은 ‘잔과 대접’을 언급하지 않기에 마태복음 23:26의 본문비평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태복음 23:26의 다른 성경 외적 상호본문은 바리새인의 행태를 비판하는 <솔로몬의 송가> 4:1-3이다. 이 단락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 대한 솔로몬의 설교’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너 부정한 사람이여, 왜 성도의 모임 가운데 앉아 있는가? 너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화를 일

47) 참고. C. S. Keener,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tthew*, 552; G. R. Osborne, *Matthew*, 852.

48) 참고. J. Nolland, *The Gospel of Matthew*, 939; H. Maccoby, “The Washing of Cups”, 9-10.

49) 참고. A. J. Saldarini, “Delegitimation of Leaders in Matthew 23”, *CBQ* 54:4 (1992), 676.

50) 하그너(D. A. Hagner)는 마 23:25-26의 관련 본문으로 <모세의 승천기> 7:7-10을 언급하며 하고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 D. A. Hagner, *Matthew 14-28*, WBC (Dallas: Word Books, 1995), 671.

으키는 너의 범죄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멀다(1절; 참고. 마 23:25의 화). 말과 외형에 있어 장황한 사람은 심판 자리에서 죄인을 비난하는 말이 거칠다(2절; 참고. 마 23:25-26의 깨끗한 바깥 면). 그리고 각양 죄와 무절제를 범하면서도 그의 손은 죄인을 대적하는 데 열심이어서 첫째간다.”(3절; 참고. 마 23:25의 착취).⁵¹⁾ 이 상호본문성은 26절의 6개 독법 모두에 적절하다.

그리고 도마복음 89:1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왜 너는 잔의 겉만 씻느냐? 너는 안을 만드신 분이 밖도 만드신 것을 모르느냐?”라고 언급한다(참고. 마 23:25-26). 이 상호본문은 ‘잔’만 언급하는 마태복음 23:26의 첫째와 둘째 독법과 유사하다. 요약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외형상의 경건과 내면의 가식에 대한 비판은 유대교 안에 퍼져 있었으며, 예수님과 마태는 이런 비판을 엄두에 두었을 것이다.

4.4. 소결론

마태복음 안의 상호본문을 고려하면, 마태복음 21:28-32의 쌍 기법은 23:26의 셋째-여섯째 독법에 가깝다. 그리고 성경 안의 상호본문 가운데 ‘잔과 대접’을 언급하는 출애굽기 25:29와 37:16 그리고 누가복음 11:39-52는 마태복음 23:26의 셋째-여섯째 독법과 유사하다. 또한 성경 외적 상호본문은 마태복음 23:26의 본문비평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잔’만 언급하는 도마복음 89:1은 26절의 첫째와 둘째 독법에 가깝다. 그러므로 상호본문은 ‘잔’보다는 ‘잔과 대접’을 약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5. 나오면서

마태복음 23:26의 외증은 넷째 독법을 지지한다. 그리고 마태의 문학적 스타일과 기법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26절의 상호본문들은 ‘잔과 대접’을 약간 더 선호한다. 따라서 26절에서 넷째 독법을 그리스어 성경의 본문으로 올리고, 비평등급 {B}를 매겨도 무방하다. 본 연구를 통해, 내증이 특정 독법 하나를 확실하게 지지하지 않을 경우에 외증을 중요하게 간주하면서,

51) 터너(D. L. Turner)는 <솔로몬의 송가> 4:1-5가 마 23:26의 관련 본문이라고 언급하고 설명 없이 넘어간다. D. L. Turner, *Matthew*, 556.

외증에 가까운 내증의 지지를 다차원적으로 세밀하게 살펴야 함을 알 수 있다.

<주제어>(Keywords)

마태복음 23:26, 본문비평, 해석, 잔, 대접.

Matthew 23:26, textual criticism, interpretation, cup, dish.

(투고 일자: 2022년 1월 24일, 심사 일자: 2022년 2월 18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4월 16일)

<참고문헌>(References)

- 고영렬, “네스틀레 알란트(Nestle-Aland) 28판의 이론적 배경과 평가”, 『신약논단』 22:2 (2015), 253-282.
- 김충연, “마태복음의 *δίκατος* 연구: 마태복음 1:18-25와 23:27-36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25:2 (2018), 243-272.
- 마이어, G., 『마태복음』, 송다니엘 역, 서울: 진리의 깃발, 2017.
- 메츠거, B. M.,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장동수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05.
- 메츠거, B. M., 열만, B. D., 『신약의 본문』, 장성민 외 역,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9.
- 송영목, “마가복음 7:9 본문비평과 해석”, 『신약논단』 28:2 (2021), 393-426.
- 파커, D. C., 『신약성경 사본학 강의』, 김은혜 역, 서울: CLC, 2019.
- Brown, F., ed., *The New Brown-Driver-Briggs-Genesius Hebrew and English Lexicon*, Peabody: Hendrickson, 1979.
- Bruner, F. D., *The Churchbook: Matthew 13-28*, Grand Rapids: Eerdmans, 2007.
- Combrink, H. J. B., “Die Argumentatiewe Struktuur van die Ellende-Aankondigings in Matteus 23”, *Nederduitse Gereformeerde Teologiese Tydskrif* 46:1-2 (2005), 105-113.
- Combrink, H. J. B., “Shame on the Hypocritical Leaders in the Church: A Socio-Rhetorical Interpretation of the Reproaches in Matthew 23”, D. B. Gowler et al., eds., *Fabrics of Discourse: Essays in Honor of Vernon K. Robbins*,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3, 1-35.
- Davies, W. D. and Allison Jr., D. C.,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tthew*, ICC, Edinburgh: T&T Clark, 1997.
- France, R. T., *The Gospel of Matthew*, NICNT, Grand Rapids: Eerdmans, 2007.
- Garland, D. E., *The Intention of Matthew 23*, Leiden: Brill, 1979.
- Gentry Jr., K. L., *The Divorce of Israel: A Redemptive-Histor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Revelation*, Volume 2, Dallas: Tolle Lege, 2017.
- Hagner, D. A., *Matthew 14-28*, WBC, Dallas: Word Books, 1995.
- Hood, J., “Matthew 23-25: The Extent of Jesus’ Fifth Discourse”,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8:3 (2009), 527-543.
- Keener, C. S.,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Eerdmans, 1999.
- Kidder, S. J.,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The Theme of the Chiastic Structure of the Gospel of Matthew”, *Journal of the Adventist Theological Society* 26:2 (2015), 149-170.

- Lategan, B. C., "Matthew 23", *Neotestamentica* 16:1 (1982), 38-41.
- Louw, J. P., "Discourse Analysis and the Greek New Testament", *Bible Translator* 24 (1973), 101-118.
- Louw, J. P. and Nida, E. A., ed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Volume 1, Cape Town: BSSA, 1993.
- Luz, U., *Matthew 21-28*,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05.
- Maccoby, H., "The Washing of Cups", *Journal for the Study of New Testament* 14 (1982), 3-15.
- Malina, B. J. and Rohrbaugh, R. L., *Social-Science Commentary on the Synoptic Gospels*, Minneapolis: Fortress, 1992.
- Montanari, F., *The Brill Dictionary of Ancient Greek*, Leiden: Brill, 2015.
- Newport, K. G. C., *The Sources and Sitz im Leben of Matthew 2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 Nolland, J., *The Gospel of Matthew*,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5.
- Olmstead, W. G., *Matthew 15-28: A Handbook on the Greek Text*,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9.
- Osborne, G. R., *Matthew*,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0.
- Rohmer, C., "Le Bonheur selon Matthieu: Perspectives (Mt 5) et Contre-Perspectives (Mt 23)", *Revue Théologique de Louvain* 50:3 (2019), 362-381.
- Saldarini, A. J., "Delegitimation of Leaders in Matthew 23", *Catholic Biblical Quarterly* 54:4 (1992), 659-680.
- Scholtz, J. J.,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A Chiastic Structure for Matthew 21:1-23:39", *In die Skriflig* 48:1 (2014), 1-7.
- Simmonds, A. R., "Woe to You...Hypocrites!: Re-Reading Matthew 23:13-36", *Bibliotheca Sacra* 663 (2009), 336-349.
- Turner, D. L., *Matthew*, BECNT, Grand Rapids: Baker, 2008.
- Van Bruggen, J., *Matteüs: Het Evangelie voor Isaraël*, CNT, Kampen: Kok, 1990.
- Viljoen, F. P., "The Controversy Dialogue Leading towards Jesus' Severe Response in Matthew 23", *In die Skriflig* 52:1 (2018), 1-8.
- Weinfeld, M., "The Charge of Hypocrisy in Matthew 23 and in Jewish Sources", *Immanuel* 24-25 (1990), 52-58.
- Wilkins, M. J., *Matthew*, Grand Rapids: Zondervan, 2004.

<Abstract>

Textual Criticism and Interpretation of Matthew 23:26

Youngmog Song
(Kosin University)

In the Gospel of Matthew of the GNT⁴/GNT⁵, the only case where the textual critical grade D is given is 23:26. However, it is surprising that few of the commentaries on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deal with textual criticism of this verse in detail. B. M. Metzger, one of editors of the GNT⁴/GNT⁵ regarded the singular genitive pronoun *ἀποῦ* (of cup) as the original rather than the plural genitive pronoun *ἀποῶν* (of cup and bowl) which later scribes altered. He briefly explains that *παροψίς* (dish) of Matthew 23:25 was added to verse 26. However, Metzger provides no concrete evidence for his own claims. In this verse, there is no consensus even among the editors of GNT⁴/GNT⁵, so *ἀποῦ* (of cup) is indicated in the text of GNT⁴/GNT⁵, but D is given as its critical grade. For the textual criticism of Matthew 23:26, this article first studies the external evidence that examines the support of the manuscripts. Then, the structural analysis (namely colon analysis) of Matthew 23:13-36, the textual context of 23:26, the literary style of Matthew, and the purpose of writing and the main theology of the Gospel of Matthew are explored in turn in order to analyze the internal evidence. Finally, the conclusion of textual criticism is suggested in the light of the intertexts of the Gospel of Matthew 23:26.

Through this study of textual criticism of Matthew 23:26, it is suggested that when attempting New Testament Greek textual criticism, not only the external evidence but also the detailed internal evidence should be investigated. For internal evidence, it is suggested to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structural analysis, the purpose of writing, the study of core theology, and the intertextual interpretation that have been overlooked in previous studies. This kind of study is more appropriate when the text critical grade is low. In addition, this comprehensive analysis has the advantage that it does not stop with the theoretical study of textual criticism itself, but also encompasses the grammatical interpretation of context and structure, and the theological interpretation that

considers main theology. The present researcher suggests that textual criticism which stayed at the level of reconstructing the original text should be developed in the direction that can provide practical help to interpret a text.